

특급전사 김수현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연기 하고픈 마음 커…차기작 결정 無”

어린시절 심장질환으로 4급 공익 판정

재검서 1급 판정 현역 입대 모범 군생활

텔런트 김수현(31)이 돌아왔다. 김수현은 1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의 종 앞에서 팬들에게 인사했다. 국내는 물론, 캐나다·일본·중국 등지에서 온 300여명이 환호했다.

김수현은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군대에 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도 “사단 수색대에 오기를 잘한 것 같다. 덕분에 보람찬 군 생활을 맹쳤다. 오늘 새벽 전역식을 준비할 때부터 실감이 안 났는데, 후련한 기분이 든다”고 밝혔다.

“군대에 있는 동안 여느 용사들과 다름없이 훈련을 열심히 했다. ‘특급전사’ 타이틀을 따기도 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부대 내에서 많은 걱정을 했다. 지금은 연기력을

정말 하고 싶은 미션이 크다. 차기작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면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다.”

김수현은 “이무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나이가 있다 보니, 다른 중·소대에 있는 (또래) 친구들과도 많이 친해졌다. 서로 많이 의지하면서 군생활을 했다”면서 “병사들이 신곡 업데이트를 빼침없이 한다. 아침마다 걸그룹 뮤직비디오를 봤다”며 웃더니 “끌고온 거수 경례와 함께 ‘전진!’이라고 인시했다.



군복무를 마친 배우 김수현이 1일 오전 경기 파주시 임진각 평화의 종 앞에서 전역 인사를 하고 있다.

색대에 지원했다. 상병, 병장 진급을 각각 1개월씩 앞당기며 모범적 인 군생활을 했다.

김수현은 2007년 MBC TV 시트콤 ‘김치 치즈 스마일’로 데뷔했다. 이후 ‘자이언트’(2010) ‘드립하이’

(2011), ‘해를 품은 달’(2012) 별에서 온 그대’(2013),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감독 장철수·2013) 등을 통해 한류스타로 떠올랐다. 전역 전부터 뷰티브랜드와 모델 계약을 맺는 등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아이오아이, 9인으로 10월 컴백 확정

전소미·유연정 제외

2년9개월만에 재결합

11인 프로젝트 그룹 ‘아이오아이’의 재결합이 확정됐다.

앨범 제작사 스튜디오 블루에 따르면 아이오아이는 10월 새 앨범을 발매하고 컴백한다. 2017년 1월 콘서트 종료 이후 2년9개월 만의 컴백이다. 다만 솔로 데뷔를 한 전소미(18), 그룹 ‘우주소녀’로 활약 중인 유연정(20)이 빠지고 9인으로 돌아온다.

아이오아이는 2016년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의 아이돌 그룹 육성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

즌1을 통해 결성됐다.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으나, 멤버들의 소속사가 달라 시작부터 1년 한시적인 활동이 예고됐고, 예정대로 해체했다. 이후 재결합 설이 꾸준히 들었다.

아이오아이의 인기에 힘 입어 ‘프로듀스’ 시리즈 제작진은 시즌2의 ‘워너원’은 18개월, 시즌3의 ‘아이즈원’은 2년6개월을 활동기간으로 정했다. 현재 방송 중인 시즌 4인 ‘프로듀스X101’을 통해 결성되는 팀의 계약 기간은 5년이다.

이번 아이오아이 매니지먼트는 스윙엔터테인먼트와 손 잡아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한국영화 지지부진 알라딘·토이스토리·존윅 ‘빅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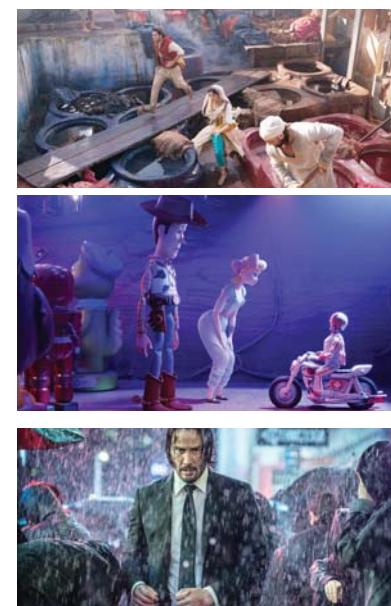
영화 ‘알라딘’이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알라딘’은 6월 29~30일 전국 1199개 상영관에서 9379회 상영해 75만7945명을 모으며 흥행성적 1위를 기록했다. 개봉 39일 만에 800만 관객을 돌파했다. 누적관객은 827만844명.

좀도둑에 지나지 않던 ‘알라딘’(메나 미수드)이 우연히 램프의 요정 ‘지니’(윌 스미스)를 만나게 되면서 환상적인 모험을 한다는 판타지 어드벤처 영화다. 1992년 개봉한 애니메이션을 실사로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윌 스미스(51), 메나 미수드(28), 나오미 스콧(27) 등이 출연했다.

2위는 ‘토이스토리’다. 1128개관에서 8829회 상영해 60만3922명을 돌았다. 개봉 11일 만에 200만 고지를 밟았다. 누적관객은 225만869명.

25년간 세계 영화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토이스토리’ 시리즈의 네 번째 이야기다. ‘우디’가 장난감의 운명을 거부하고 도망간 ‘포키’를 찾기 위해 길 위에 나서고 우연히 오랜 친구 ‘보핍’을 만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는 이야기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2015) 각 분야로 참여한 조지 쿠리(39)가 메가폰을 잡았다. 할리우드 배우 톰 헥스(63)와 팀艾伦(66)이 ‘우디’와 ‘버즈’를 담당했다. 키아누 리브



스(55)는 4편에 새롭게 합류한 ‘듀크 카운’ 목소리를 맡았다. 존 윌(3)은 3위다. 848개관에서 5906회 상영해 30만1096명을 추가했다. 누적관객은 67만5803명.

현상금 1400만달러를 노리는 전 세계 킬러들의 표적이 된 존 윌(키아누 리브스)의 평화를 위한 마지막 전쟁을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다. 할리우드 배우 키아누 리브스(55), 할리 베리(53), 앤젤리카 허스턴(68) 등이 출연했다.

띠로 보는 오늘의 운세



쥐

진실이 요구되는 오늘이다.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면 자기 뒷걸림을 염려 한다. 머리는 누구보다 뒤지지 않으나 용기가 없다. 어떤 것이라 하면 된다는 자신감으로 대하라. 동업은 금물, 원망의 소리 높아진다. ㄱ, ㅂ, ㅇ 성씨는 길들은 이제 그만.



소

자신감에 넘쳐 있는 패기는 좋지만 계획에 없던 외출은 삼가라. 친분 있는 사람과 지나치게 행동하다 실수가 있을 수 있다. ㅂ, ㅈ, ㅎ 성씨는 자기가 한 일에는 책임 있는 삶이 요구된다. 점차적으로 본인 궤도에 들어오니 걱정 사라질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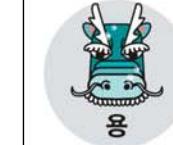
호랑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유비무한이 필요할 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고 일찍 귀가함이 좋을 듯. 취중에 시비 우려된다. 하는 일 잘 끝나고 마음 들뜨지 말고 책임을 다하며 마무리에 신경써야 할 듯. 3, 9, 11월생은 추진하는 일 길하다.



토끼

단기적인 승보보다는 장기적인 계획 세워 추진한다면 생각보다 독이 크다.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함께 갈 사람 찾지 마라. 동업은 금물, ㅅ, ㅈ, ㅍ 성씨는 시름하는 사람 떠나는 격이니 고심만 할 뿐. 적극적인 용기가 필요할 때이다.



용

세상을 살아가는 데 신용이 재산이다. 현재만 생각하고 상대를 기만한다면 신용 잃고 사람도 잃게 된다. 김정을 억제하고 미래 지향적인 자세가 요구됨. 1, 8, 10월생은 기훈자는 애정 문제로 갈등 겪을 수 있다. 늦기 전에 가정의 회복을 돋독히 할 것.



뱀

유연한 능동이 진담이 되어 상대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친한 사이라도 때로는 언행에 신중을 기함이 좋을 듯. 이제까지 몸담아 있던 곳을 떠나면 후회뿐이다. ㅇ, ㅈ, ㅍ 성씨는 남, 동쪽에 행운이 열린다.



양

의욕이 상실될 수 있으니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 동업 했다면 처음 시작할 때처럼 사이 원만하면 더이상 바랄 게 없겠다. 서로 자존심 버리고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다면 웃음 속에 대성할 수 있다. 1, 5, 7월생은 동북쪽이 길하다.



원숭이

어느 누구든 인생에 대해 조언은 해줄 수 있어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비판만 하지 말고 올바른 길 찾아라. 때를 기다리면서 수능에 힘들 때. 돼지, 범, 뱀띠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으니 자존심 버려라. 어려운 일 순조롭게 풀릴 듯.



닭

될 듯하면서도 풀리지 않을 때는 잠시 후퇴했다가 다시 계획 세우는 것이 손해 연할 수 있다. 첫 밸을 잘못 디뎌 놓았기에 항상 혼자인 것처럼 외롭구나. ㄱ, ㅁ, ㅎ 성씨는 매사에 신경 쓸 일뿐. 잠시 편안한 휴식이 필요하다.



개

자기 주장은 확실히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만 손실이 없다. 물질적 보상에 마음에 상처가 크며 마음먹은 대로 안되니 속만 상할 뿐. 2, 7, 10월생은 결단력 없이 사람 사귀려 들지 마라. 동남쪽에 서 도움 줄 듯. 서두르지 말 것.



돼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자신에게 해가 없다. 주위에서 아무리 조언한다 해도 결정은 자신이 하는 것. 한순간의 결정이 영원한 것이니 속단하지 말고 대처하라. 기훈자는 처가에 신경 쓰고 미혼자는 곧 배우자 찾게 될 듯.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 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광주광역시